

19세기 한자문화권에서의 어휘 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일본의 ‘러시아’ 표기를 중심으로-

朴省姬**

oooooh55@korea.ac.kr

〈 目 次 〉

1. 들어가며	3.1 러시아에 대한 표기의 교류 양상
2. 연구 자료 및 방법	3.2 한국에서 지명 표기 방식의 분류
3. 연구 결과	4. 나오며

Key word : 서양 지명 표기(the foreign place notation), 어휘 교류사(the history of interchange of the vocabulary), 음역 표기(sound translation notation), 독립신문(The Independent newspaper), 한성순보(The Hansung Sunbo)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분석하고, 중국과 일본의 서양 관련 자료 표기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한자문화권에서 지명 표기의 사용 실태 및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외래어 가운데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서양 지명 표기는 서구 열강이 동양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였던 방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금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1010196)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근대 일본어 표기

(新金山, Melbourne)’과 ‘라성(羅城, Los Angeles)’, ‘만향파(晚香坡, Vancouver)¹⁾’, ‘은국(銀國, Argentina)²⁾’, ‘덩말, 덩몰, 정말(丁抹, Denmark)’, ‘유야납(維也納, Vienna)’ 등의 표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표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근대 문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아울러 지명 표기에 있어 주목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동일한 지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기 형태가 출현하고, 이들 한자 표기를 한글로 음독(音讀)하는 과정에서 그 어형은 물론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독일(Deutschland)’에 대하여 ‘덕의지(德意志)’ 또는 ‘독일(獨逸)’로 쓰거나, ‘오스트리아(Austria)’를 ‘오대리(澳大利)’ 그리고 ‘오지리(壘地利·奧地利)’ 등으로 표기하고 읽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한자 지명 중 어느 쪽의 표기를 따랐는가에 의해 달라진다. 이것은 당시 중국과 일본을 통해 유입된 지명 표기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어휘 교류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 하겠다. 또한 언어 연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어의 통시적인 변용 연구에 기초적이고 다각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기에 간행된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서양 지명의 용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국 계통 표기 및 일본식 표기와의 포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지명 표기의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백로(2012)는 근대 이행기 서양 문물의 수용사(受容史)적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신생 한자어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되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⁴⁾ 그는 지금까지 신생 한자어에

- 1) 「만향파(晚香坡)」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밴쿠버’라는 지명은 1792년 태평양 연안을 탐험한 조지 밴쿠버 선장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알려진다. 「만향파(晚香坡)」는 밴쿠버(Vancouver)에 대한 중국식 한자 표기이다. 19세기 근대 신문 자료에는 ‘잠시 만향파에서 류련하다(〈독립신문〉1889.9.27.)’과 ‘만향파 폭동의 손해(〈대한매일신보〉1907.9.18)’ 등과 같이 출현하였다.
- 2) 「은국(銀國)」은 남아메리카 대륙 남동부에 있는 연방제 공화국인 아르헨티나(Argentina)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지명 표기례로는 ‘銀國(南米)一百十餘萬方里(〈대조선독립협회회보〉제15호(1897.6.30.))’과 ‘銀國 Aegentina(개일편《한영사전》1897)’ 등이 있다.
- 3) 金鎔均(2017)「西鶴의 浮世草子에 보이는 4단활용동사의 상1단화에 관한 일고찰」『日本研究 第46輯』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pp.8-9

대한 연구는 개념어와 번역 한자어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반면 인명, 지명을 위주로 한 음역어(音譯語)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음역어의 대역 방법과 그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동아시아의 한자어 어휘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한섭(2016)은 어휘의 수용과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페데리코 마시니(Federico Mashini)의 저서에 나오는 어휘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어휘가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한성주보(漢城週報)』에 출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1880년대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어휘가 교류 전파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페데리코 마시니(Federico Mashini)의 자료는 해당 어휘가 중국어인지, 일본에서 들어 온 말인지, 또 단어의 용례와 유래를 적고 있어 중국어와 한·중·일 어휘 교류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 동양 삼국의 새로운 어휘의 성립과 교류 전파를 밝히기 위한 연구 성과의 일부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⁵⁾

어휘 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선귀웨이(沈國威, 1994)는 『영화자전(英華字典, Lobscheid, 1866-1869)』(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4권)을 연구 자료로 하여 근대 일본어와 중국어 어휘의 교류사(交流史)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영화자전(英華字典)』에 나타나는 역어(譯語) 및 일본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자어의 생성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자전(英華字典)』이 근대 일본어의 성립과 역어(譯語)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⁶⁾ 치바 겐고(千葉謙悟, 2010)는 동서(東西) 언어문화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한자문화권에서의 지명 표기를 포함하여 근대어의 생성과 정착 과정, 도입 경로를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⁷⁾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 양국의 어휘 교류의 문제를 다룬

-
- 4) 백로(2012)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신생 한자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300
 - 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엮음(2016) 『근대기 동아시아의 언어교섭』 한국문화사 pp.18-35
 - 6) 沈國威(1994) 『近代日中語彙交流史—新漢語の生成と受容—』 笠間書院 pp.135-142
 - 7) 千葉謙悟(2011) 『19世紀音訳語の資料・特徴・交流』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 7』 関西大学 pp.95-121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되, 연구 범위를 넓혀 19세기 한국에서 간행된 근대 신문 자료에 출현하는 표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명 표기의 사용 실태 및 영향 관계를 고찰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대 신문 자료의 전문(全文)에 출현하는 지명 표기 용례를 추출하고 데이터화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표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자문화권에서 지명 표기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화기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지명을 표기하였고 서양 지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기해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표기와의 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한자문화권에서의 어휘 교류 및 표기의 교류사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세기에 간행된 근대 신문 자료와 외교 문서, 그리고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 및 일본의 서양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명 표제어를 추출, 분석하고 당시 지명 표기의 사용 실태 및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1883)⁸⁾를 비롯하여 『한성주보(漢城周報)』(1886)⁹⁾와 『황성신문(皇城新聞)』(1894), 『독립신문(獨立新聞)』(1896)¹⁰⁾을 중

8) 『한성순보(漢城旬報)』는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된 순간 신문으로 한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근대 신문이자 관보이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발행하던 박문국(博文局)이 불타자 12월 6일부터 발행이 중단되었지만, 1886년 1월 25일 『한성주보(漢城周報)』로 맥을 이었다. 『한성순보(漢城旬報)』가 모두 한문으로 작성된데 반해, 『한성주보(漢城周報)』는 일부 기사가 한글로 작성되었다.

9) 『한성주보(漢城周報)』는 1886년에 간행된 신문이며 『한성순보(漢城旬報)』를 계승한 것이므로 형식상으로 관보나 신문으로 볼 수 있다.

10) 『독립신문(獨立新聞)』은 1896년 4월 7일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순한글, 영문판 신문으로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다. 창간 당시 국배판(218×303mm) 형식으로 3면은 한글, 1면은 영어로 표기되었다. 본문은 순한글 세로쓰기이며, 논설과 광고, 국내외 소식 보도 면으로 구성되었다.

심으로 조사하였다.

근대 신문 자료 가운데 『한성순보(漢城旬報)』(1883)는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순보서(旬報序)’에서 밝히고 있듯이, 외국의 신문을 번역하여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장비, 서양의 사상, 문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성순보(漢城旬報)』에서 번역, 인용되었던 외국 자료는 일본의 『동경일일신보(東京日日申報)』와 중국의 『중외신보(中外申報)』, 『상해신보(上海申報)』, 『순환일보(循環日報)』 등이었으며, 그 밖에 미국과 영국, 독일, 인도 등에서 간행된 신문과 잡지를 번역하여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서양 관련 자료로는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徐繼畬, 1847)와 『영환지략(瀛環志略)』(魏源, 1849)¹¹⁾, 『영화사전(英華字典)』(Lobscheid, 1866-1869)을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서양 기행문인 『서양사정(西洋事情)』(福澤諭吉, 1866)과 국가의 대외적인 공적 보고서인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久米邦武, 1871)¹²⁾, 그리고 지리 교과서인 『세계국진(世界國誌)』(福澤諭吉, 1869)과 같이 19세기의 서양 사정과 문물을 소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19세기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와 중국, 일본의 서양 관련 자료는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당시 사용되었던 지명 표기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지명 표기는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표기 방식은 물론 1870년대의 근대적인 표기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자료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19세기 서양의 무엇에 주목하고 받아들

11) 1889년 손유신(孫維新)은 『서양의 격치학과 최근 번역 출간된 책들의 장단점과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논함』에서 이 시기 중요한 지리 번역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명과 지명은 『해국도지(海國圖志)』와 『영환지략(瀛環志略)』에서 다수 인용하고 있는데, 그 책들은 지나치게 간단하기도 상세하지도 않아 문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술하였다.(썬우전환 지음·한지은 옮김(2013)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푸른 역사 p.232)

12)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는 1871년 메이지 정부의 고위 관료와 실무진들이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을 돌아보며, 구미(歐美)에서의 활동 내역과 견문 내용을 일기와 같이 상세히 기록한 국가의 대외적인 공적 보고서이다. 구미 각국을 순람(巡覽)하면서 사절단에 참여한 서기관과 실무진들이 매일 기록 작성한 각국에 대한 서양 지명 표기들은 당시의 지명 표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일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표기의 영향 관계 및 어휘 교류의 흐름을
해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3.1 러시아에 대한 표기의 교류 양상

본 절에서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지명 표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어휘 교류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지명 표기의 용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세기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초출 용례의 표기를 중국의 한역(漢
譯) 세계 지리서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中國界內卽向俄國戈馬沙將軍索還是時戈將軍慨然允諾

(『漢城旬報』1883년 10월 31일 제4면 各國近事)

俄國이 쏘흔 對馬島를 다시 佔據코즈흔다 ㅎ고 或云 俄國政府에서 日本政府에
致書햐야 其意를 告示햐 故로 日本政府에서 深以爲憂햐야

(『漢城周報』1886년 1월 25일 제11면 外報)

今에 俄國政府에 用人햐는 法을 試論햐거던 人才를 隨햐야 收用햐 生甯은 全無햐
고 但門閥과 交誼를 相較햐야 各其任着햐는디

(『皇城新聞』1898년 9월 5일 제1면 論說)

아라샤에 가는공스 민영환 슈원 윤치호 참서관 김득런 김도일 제씨는 본월 초일
일에 아라샤 황데 즉위 레에 참례 햐랴고 제물포 에서 출발햐다 아라샤 황데
즉위레에 각국이 다 별수를 보닛는디

(『獨立新聞』1896년 4월 7일 제1권 제1호 제2면 잡보)

嘉庆初合列国兵数十万,由陆地攻俄罗斯,俄罗斯倾国迁避,佛兰西兵长驱入其国都,
俄罗斯兵乘大风雪夜,潜回纵火,佛兰西兵焚冻死各半,败绩而遁,此二奇也。

(『海國圖志』(1847) 卷一 p.15)

按俄罗斯境土在亞細亞者十之六而其國都在歐羅波之波羅的海隅土耳其東中兩土在亞細亞而其達都之西土亦在 (『瀛環志略』(1849) 第四卷 俄羅斯國 p.337)
俄羅斯國 (『英華字典』(1866-1869) p.1524)

위의 용례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Russia)」에 대하여 『한성순보(漢城旬報)』에서는 1883년 10월에 최초의 용례로서 「俄國」이라는 한자 음역(音譯) 표기가 출현하였다. 이후 1886년 1월 『한성주보(漢城周報)』외보(外報)와 1898년 9월 『황성신문(皇城新聞)』논설(論說)에서도 『한성순보(漢城旬報)』와 동일한 어형인 「俄國」이라는 표기가 초출 용례로서 등장하였다. 「俄國」의 한자 표기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중국식 한자 표기인 「俄羅斯」의 첫 두문자(頭文字) 「俄」에 「国」을 붙여 약어(略語)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¹³⁾.

「俄羅斯」는 중국에서 「러시아(Russia)」에 대하여 한자로 옮겨 적은 표기이다. 위의 용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1847)와 『영환지략(瀛環志略)』(1849)에서도 동일한 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俄羅斯」는 ‘어뤄쓰’라고 읽는다. 러시아가 중국에서 ‘어뤄쓰’로 불리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전해진다. 17세기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이 때 통역을 맡은 사람이 몽골인이었다. 이들은 당시 러시아를 나타내는 ‘로스(Ros)’의 첫 글자 [r]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모음을 하나 추가하여 ‘오로스(Oros)’라 불렀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연유로 중국에서 러시아는 ‘어뤄쓰(俄羅斯)’라는 나라로 알려진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사용하던 「俄羅斯」라는 표기는 1886년 2월 1일자 『한성주보(漢城周報)』제2호에서 ‘로시아는 俄羅斯요’의 용례에 등장하는데, 이 보다 이른 시기인 1864년 2월 28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彼人投給一張書, 故垢而見之, 乃俄羅斯人’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俄國(아국)’은 러시아를 뜻하는 ‘아라사국(俄羅斯國)’을 줄인 말이다. 고종7년 1870년 10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躬往俄國, 詰問所由於總督’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4) 「러시아(Russia)」의 지명 표기의 기원에 대하여 Smith(1870)의 『A Vocabulary of Proper Names』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俄羅斯 Ngo-ko(sic) -si, the usual translation of the word into Chinese. This is perhaps a transference of the Mongol word Ooroos, or oros into Chinese, that being the name for Russia, first known to the Chinese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Ming dynasty.

그리고 1884년 7월 7일 《한·러수호통상조약》조약문에서는 러시아를 높여 부른 「大俄羅斯國」과 같은 표기도 등장한다⁵⁾. 이들 표기 방식은 모두 중국의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와 동일한 어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형적인 중국 계통 표기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신문(獨立新聞)』의 기사에 보이는 ‘아라샤’는 당시 「러시아(Russia)」를 가리키던 우리말 표기였다. 『독립신문(獨立新聞)』에 나타나는 지명의 초출(初出) 용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한자 음역 표기인 「俄羅斯, 俄羅斯」를 한글로 읽어 ‘아라샤’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러시아(Russia)」에 대하여 ‘아라사(俄羅斯)’로 적은 표기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아관파천(俄館播遷)’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단어로 남아있을 뿐이다⁶⁾. 이와 관련하여 개항기의 일본 외무성(外務省) 자료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일본 공사(日本公使)인 니시토쿠 지로(西德二郎)에게 「아관파천 협의안 통지(俄館播遷 協議案 通知)」를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때 아관파천의 ‘아(俄)’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중국 계통 표기인 ‘아라사(俄羅斯)’의 첫 글자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관(俄館)’이 러시아 공관을 뜻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연유가 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俄國’ 또는 ‘아라샤’와 같은 표기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이 한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 표기를 한자로 적거나, 한국 한자음에 입각하여 읽은 것이 표기에 반영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Russia)」에 대하여 ‘俄國’과 ‘아라샤’와 같이 기본적으로 중국 계통 표기를 따르던 표기 방식은 일본으로의 개항 이후 「로시아(露西亞·魯西亞)」로 읽는 등 표기 방식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와 개항기의 외교 문서 자료에 나타나는 「러시아(Russia)」의 초출(初出)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나선정벌(羅禪征伐)’이라는 어휘에서도 ‘러시아(Russia)’에 대한 표기를 찾을 수 있다. ‘나선(羅禪)’은 ‘루쓰(Rus)’를 한자어로 옮긴 말이다. 러시아는 한자어로 ‘나칠(羅剎)’ 혹은 ‘아라사(俄羅斯)’ 등으로 표기되었고, 만주어 문헌에는 ‘로차(Loca)’로 기록되었다.(김호동(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p.197)

16) 홍성호 2016년 ‘아관파천’에 담긴 우리말 역사.
<http://v.media.daum.net/v/20160229070309019>(2017년 12월 25일)

普魯士同盟魯西亞內有虛無黨日成外與土耳其有事故兩國俱不足恃如英吉利以其有埃國事件及馬島變難方有不和之

(『漢城旬報』1884년 1월 18일 제7면 各國近事)

로시아지경이유로부와에시아두큰늑지를런히여쁘니그유로부에잇는즈는유로부
로시아라호고그에시아에잇는즈는에시아로시아라호고또서베리아라일칸더라

(『漢城周報』1886년 4월 26일 제15면 外報)

부모의 은혜는 물에도 싸지지 안코 불에도 타지지 안나니라 로시아

(『獨立新聞』1899년 5월 2일 제4권 제96호 제1면 각국 명담)

露西亞帝가 平和會議에 關하여 列國에 勸誘함이다 參會할 事로 回答한 것이 비록
儀式에 的 하나 各國이입에 贊同함의 露帝도 또한 發議者로 消却지 못할 것으로
思하였더니 (『皇城新聞』1899년 1월 6일 제4면 外報)

千八百五十四年英ト共ニ土耳其古ヲ救テ魯西亞ヲ攻メ二年ノ大戰爭ニ及ビ千八百
五十六年和議成リ千八百五十九年帝親カラ兵二將トシテ伊太里ニ出テサルヂニ
アノ王(今ノ伊太里王ナリ) (『西洋事情』(1866) 二編 卷四 p.20-前面)

且魯西亞と既ニ境壤を接するニ至れりと然らハ定テ境界論等あるへし右事實探
索之事 (『近代韓國外交文書 3』 朝日修好條規 外務省 1869년 12월 3일)
朝鮮國之儀既ニ魯西亞之毒物ニ心醉シ陰ニ其保護ニ依賴するとの風評あり眞ニ
然や否何事も一人の子簡にて天下を私するものなり魯西亞 土留古, 支那等から
とうの如し (『世界國盡』(1869) p.790)

近年亦露西亞國ヨリ、「アラスガ」ト云荒土五十七万七千三百九十方英里ノ地ヲ買取
タリ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実記』(1871) 第二卷 米利堅合衆國ノ總説 p.54)

위에서 제시한 용례문에서 보듯이, 1880년대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에서 ‘러시아(Russia)’에 대한 표기는 「魯西亞, 露西亞, 로시아, 로셔아」 등으로 나타 났다¹⁷⁾. 이들 표기는 『서양사정(西洋事情)』(1866)의 초출(初出) 용례 「魯西亞」

17) 에도시대(1603-1868)에 일본에서 ‘러시아(Russia)’를 가리키던 말로 ‘아라사(俄羅斯/峩羅斯)’와 ‘로셔아(魯西亞)’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표기 중 많이 쓰인 것은 ‘로셔아(魯西亞)’였다. 1855년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한 「日本國魯西亞國通好條約」에서 러시아를 ‘魯西亞’로 표기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875년에 러시아와 맺은 「樞天千島交換條約」에서는 ‘今般露西亞國ト千島樞太兩島交換條約別紙ノ通取結相成候條此旨布告候事’에서 보는 것처럼 ‘露西亞’가 쓰였다. 당시 러시아를 표기한 ‘魯西亞’의 ‘魯’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태어났던 나라 이름이기도 하여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글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魯’가 ‘노둔하다(老鈍: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고

를 시작으로 하여 출현한 일본 고유의 한자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거나, 한글로 음독(音讀)하여 적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俄羅斯』라는 표기가 일본 한자음에 입각하여 읽었을 때, 서양 원음 ‘Russia’와 상이하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에 맞는 『ロシア』를 대응시켜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표기를 고안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Russia)』에 대한 표기 가운데 중국 계통 표기인 『俄羅斯·俄國』은 한국과 일본 자료에 모두 출현하지만¹⁸⁾, 『露西亞·魯西亞』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국 자료에 한하여서는 그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표기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 한자음을 대응시켜 만든 일본 고유의 한자 표기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사용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로서 1880년대 이후 근대 신문 자료에 출현하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표기 『俄羅斯·俄國』과 『露西亞·魯西亞』의 전체어수(延べ語数)를 집계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둔하다),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여서 사용하기 꺼리는 글자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약문을 작성할 때 일본 측에 ‘魯’를 쓰지 말고 다른 한자로 대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는 것이다(熊沢徹 『言葉から歴史を考える—日魯から日露へ—ロシアの呼称』 『歴史評論』 457 校倉書房 1988.5). 분명한 것은 이 조약이 맺어진 뒤로 일본의 신문 잡지에서 ‘魯西亞’ 대신 ‘露西亞’를 쓰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도 전해진 듯, 한반도 내에서 일본 세력이 강해진 1905년 이후에는 러시아를 표기하는데 ‘露西亞’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는 한자로 나라 이름을 표기할 경우 글자의 의미와 이미지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이한섭 외(2017) 『개화기 외국지명 표기사전』 pp.58-59)

- 18) 일본 자료에 나타나는 『러시아(Russia)』에 대한 중국 계통 표기 『俄羅斯』는 다음과 같다. 美術を評し、文學を論ずるに當りて、沒理想を基とするものは、獨逸に文庫 Magazin の一黨あり、スカンヂナキヤにイプセンが餘流あり、英吉利(イギリス)にも俄羅斯(オロシヤ)にもその人あれど、概皆エミル・ゾラを宗とす。(『柵草紙』1891(明治24)森鷗外)

지명 표기	漢城旬報 (1883)	漢城周報 (1886)	皇城新聞 (1894)	獨立新聞 (1896)
俄羅斯·俄國	215회	178회	12,291회	1,086회
露西亞·魯西亞	8회	9회	33회	13회
露西亞·魯西亞 출현비율	3.5%	4.8%	0.2%	1.1%

<표 1> 근대 신문자료에 출현하는 'Russia'에 대한 표기의 전체어수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俄羅斯·俄國」과 「露西亞·魯西亞」에 대한 지명 표기의 전체어수(延べ語數)를 비교하면 그 출현 횟수에 있어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계통 표기인 「俄羅斯·俄國」의 표기에 비하여 일본식 표기인 「露西亞·魯西亞」의 출현 횟수는 전반적으로 5%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독립신문(獨立新聞)』에서는 1% 이내로 「俄羅斯」의 표기가 다수 출현한 것에 비해 「露西亞·魯西亞」는 비교적 적은 횟수로 출현한 것이다. 이처럼 18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露西亞·魯西亞」라는 표기는 비록 그 수가 적게 출현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항 이후 서양과의 접촉이 일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해지자 점차 일본 고유의 표기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신문 자료에서 해당 지명의 초출(初出) 용례가 나타나는 시기를 살펴보면, 모든 자료에서 「露西亞·魯西亞」가 중국 계통 표기인 「俄羅斯·俄國」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俄羅斯·俄國」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되어 「러시아(Russia)」를 가리키는 표기로서 줄곧 사용되어 오다가, 일본으로의 개항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한국으로 일본의 어휘가 유입되기 시작하자 점차적으로 일본식 표기의 영향도 받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에서의 어휘 교류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는 중국을 통해 서양 지명을 비롯한 서양의 신개념과 문물을 나타내는 어휘를 받아들이다가, 개항기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심화되자 일본에서 고안해 낸 일본 고유의 지명 표기 방식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지만 주경위(朱京偉, 2010)는 메이지 시기의 신한어(新漢語)와 역어(譯語)가 중국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한성순보(漢城旬報)』를 통해 한국어에 먼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¹⁹⁾.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에서의 지명 표기는 중국 계통 표기의 일변도에서 19세기 말 일본과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자 일본 자국의 음운 체계에 맞는 일본 고유의 새로운 표기 방식을 받아들여 사용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3.2 한국에서 지명 표기 방식의 분류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서양 지명의 용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세기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와 중국, 일본의 서양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당시 사용된 표기 방식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로 지명을 표기하는 경우이다. 한자 지명 표기의 경우 중국 계통의 한자 표기에서 일본식 표기로의 사용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러시아(俄羅斯·俄國→露西亞·魯西亞)’를 비롯하여 ‘독일(德意志·德國→獨逸)’과 ‘프랑스(法蘭西·法國→佛蘭西·佛國)’, ‘벨기에(比利時→白耳義)’, ‘이탈리아(伊太利·伊國→伊太利)’ 등의 표기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중국에서 사용하던 중국 계통 표기를 유지하는 형태로 그대로 받아들여 쓰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덴마크(嗚馬)’와 ‘더블린(都伯林)’, ‘리옹(里昂)’, ‘마드리드(馬德里)’, ‘모스크바(莫斯科)’, ‘미국(亞美利加)’, ‘밀란(米蘭)’, ‘보헤미아(波希米)’, ‘보스톤(波士敦)’, ‘베니스(威尼斯)’, ‘베를린(柏林)’, ‘비엔나(維也納)’, ‘스페인(西班牙)’, ‘스위스(瑞士)’, ‘스웨덴(瑞典)’, ‘워싱턴(華盛頓)’, ‘이집트(埃及)’, ‘잉글랜드(英蘭, 英倫)’, ‘자바섬(爪哇)’, ‘파리(巴黎)’, ‘페루(秘魯)’, ‘포르투갈(葡萄牙)’, ‘폴란드(波蘭)’, ‘프러시아(普魯士)’, ‘핀란드(芬蘭)’, ‘캘리포니아(加利福尼亞)’, ‘캐나다(加拿他)’, ‘칠레(智利)’, ‘터키(土耳其)’ 등이 있으며 대다수의 지명 표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한 어형으로 유지되어 사용

19) 朱京偉(2010) 『『漢城旬報』(1883-1884)から見た中日韓の語彙交流』 『漢字文化圈における近代のキーワード』 漢字文化圈近代語研究會 pp.28-29

되었으며, 이후 한국에서는 위의 지명 표기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셋째, 지명을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한글로 읽어 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중국 계통 한자 표기에서 서양 원음에 맞게 한글로 쓰는 방식으로의 표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검교→캠브리지(Cambridge)’, ‘구금산→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나위→노어웨·노르웨(Norway)’, ‘단향산→혼놀룰루(Honolulu)’, ‘덩말·정물→덴마크(Denmark)’, ‘라성→노샌질스(Los Angeles)’, ‘련미국·단묵→덴마크·셴마크(Denmark)’, ‘만향파→반큐버·빈구버(Vancouver)’, ‘묵셔가→브라실(Brazil)’, ‘백람→베를린(Berlin)’, ‘보로사→프러시아(Prussia)’, ‘소격난→스콧틀랜(Scotland)’, ‘유아납→비에나(Vienna)’, ‘애급→에집트(Egypt)’, ‘영륜→잉글랜드(England)’, ‘파사돈→보스턴(Boston)’, ‘포도아→포츄갈(Portugal)’, ‘토이기→터어키(Turkey)’, ‘화성돈→워싱턴(Washington)’ 등의 표기가 포함된다.

넷째,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한글로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일본의 한자 읽는 방식에 입각하여 적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그리스(Greece)’를 ‘끼리이기(ギリイキ)’로 표기한 지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한자 표기 이외에도 가타카나를 사용한 지명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표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끼리이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서 ‘그리스(Greece)’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ギリイキ’를 일본어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그밖에 ‘네덜란드(Netherlands)’에 대한 한글 표기인 ‘오란다(オランダ)’와 ‘호르란쑈(ホルランド)’ 역시 일본식 발음의 한글 전사 표기로서 이들 표기는 일본식 표기의 영향으로서 주목할 만한 표기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²⁰⁾.

20) 『한성주보(漢城周報)』제4호(1886.2.22.)에서는 ‘그리스(Greece)’를 ‘끼리이기’로 표기하였다. 『한성주보(漢城周報)』제5호(1886.3.1.)에서는 ‘네덜란드(Netherlands)’를 ‘호르란쑈’와 ‘오란다’로 적고 있다. 『한성주보(漢城周報)』에서 일본식 외국지명이 나오는 것은 이들 기사를 인용한 자료 출처가 일본 자료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19세기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중국과 일본의 서양 관련 자료의 지명 표기 방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지명 표기가 중국을 통한 서구 문물의 유입에서 일본으로의 개항이라는 전환점을 맞으면서 어휘 면에 있어 변화되어 가는 사용 실태 및 양상을 개별적인 자료의 용례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지명 표기는 문화 교류의 빈번함과 지역의 인접성으로 중국과 일본 표기의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1880년대를 전후로 하여 그 이전에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 표기를 따랐다면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일본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을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변화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서양 지명의 용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세기 한자문화권에서의 어휘 교류의 양상과 한국에서 사용된 지명 표기 방식을 분류하여 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선정에 있어 한국의 근대 신문 자료와 중국과 일본의 서양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중국과 일본의 신문 자료를 추가하여 조사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량의 한자 어휘는 중국과 일본의 어휘 교류사(交流史)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어휘 교류의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어휘의 유입이 이루어졌지만, 창일 전쟁 이후 중국인의 일본 유학이 시작됨에 따라 상당수의 서양 서적이 일본어로 중역(重譯) 되었으며, 일본어 어휘가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다. 금후에는 일본의 어휘가 중국의 지명 표기에 영향을 미친 표기례를 조사하여 한중일 한자문화권에서의 어휘 교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2008) 『근대한국외교문서1(동북아 역사 자료총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金鎔均(2017) 『西鶴의 浮世草子에 보이는 4단활용동사의 상1단화에 관한 일고찰』 『日本研究』第46輯 中央大學校日本研究所 pp.8-9

- 김호동(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p.197
- 백로(2012)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신생 한자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300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엮음(2016) 『근대기 동아시아의 언어교섭』 한국문화사 pp.18-19
- 이지영(2008) 『개화기의 외국 지명 수용 과정-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세계지리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0집 국어국문학회 pp.129-155
- 이한섭 외(2017) 『개화기 외국 지명 표기 사전』 pp.58-59
- 쩌우전환 지음·한지은 옮김(2013)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푸른역사 p.232
- 朱京偉(2010) 『『漢城旬報』(1883~1884)から見た中日韓の語彙交流』 『漢字文化圏における近代のキーワード』 漢字文化圏近代語研究會 pp.17-29
- 沈国威(1994) 『近代日中語彙交流史-新漢語の生成と受容』 笠間書院 pp.135-142
- 千葉謙悟(2011) 『19世紀音訳語の資料・特徴・交流』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7』 関西大学 pp.95-121

접 수 일: 2017년 12월 31일

심사완료: 2018년 01월 30일

게재결정: 2018년 01월 31일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change of vocabulary
in Chinese character cultural sphere of the 19th century**

—Focused on the Foreign Place Nota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influence of geographic naming in Chinese character culture area by analyzing geographic naming that appears on the modern newspaper archives and the diplomatic documents of port opening era in 19th century, and examining matches for the titles of Chinese and Japanese in the western resourc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data to clar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geographic naming in Korea, China, and Japan by extracting nominated entries, building databases and applications, through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s. Through this, although geographic naming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China' and Japan' naming due to the proximity of the area and frequent cultural exchanges, around the 1880s, it was found that following the traditional Chinese origin naming, as the Japanese influence was increased, it gradually changed to accept the naming method used in Japan. In this study, the geographic naming of Korea was examined based on the individual data for the usage patterns and aspects that are changing in terms of vocabulary with the turning point of opening port to Japan from the influx of Western culture through China.